

사우디 ‘Vision 2030’ 유망사업과 진출 시사점

서상현 수석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unisa21@posri.re.kr)

목차

1. 사우디의 최근 정치·경제현황
2. 新경제활성화를 위한 ‘비전 2030’
3. ‘비전 2030’ 실행 유망분야 및 일본 협력 사례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사우디는 유가하락에 의한 경제 침체와 국내정치 불안 증대, 그리고 예멘내전 개입과 이란과의 관계 악화 등 대내외적 위기에 봉착
 - 유가하락 등의 여파로 '17년 성장률은 0.8%(IMF)로 예측되며 재정수지는 GDP대비 '14년 △2.3%에서 '15년 △15%로 악화
- 이러한 정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압둘아지즈 국왕의 아들인 부왕세자 빈 살만 주도하에 '비전 2030' 수립 및 발표('16.4.25.)
 - '비전 2030'의 주요 내용은 '활기찬 사회', '번영하는 경제', '진취적인 국가'라는 3대 영역으로 구성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구상임
- '비전 2030'의 주요 목표는 제조업 육성 등 탈에너지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신성장분야 집중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U\$4조가 필요하며 8대 성장 유망분야에 투자를 집중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
 - 주요 신성장분야로는 관광, 신재생에너지, 광업, IT산업 등이 있으며 투자 확대를 위해 PIF 자산을 현재 6000억 리알에서 '30년에는 7조 리알로 증대
- 일본은 '비전 2030' 활용을 위해 사우디와 각료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관 공동 진출 본격화
 - 1차 일·사우디 '비전 2030' 각료회의가 리야드에서 개최되어 IoT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우선 협력분야로 선정하였으며, 소프트뱅크는 PIF와 공동으로 U\$1,000억 IT펀드 조성 합의
- 한국의 사우디 진출은 대부분 건설 플랜트 분야에 집중되었으나 향후에는 IT 및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등 진출분야 다양화 필요
 - 특히 한국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IT 및 의료산업의 협력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사우디 진출에 있어 보조금 축소 등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과 왕족들의 부왕세자에 대한 불안 등 정치 리스크 대비 필요
 - 또한 조세제도 이원화 부담과 자국민우선 고용정책 등 사업 리스크도 상존

1. 사우디의 최근 정치·경제현황

□ 사우디는 유가하락에 의한 경제상황 악화와 국민들의 국내정치 불만, 그리고 예멘 내전개입 및 이란과의 관계악화 등 국내·외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15년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 즉위 이후 친정체제 구축에 따른 일부 왕족들의 불만 등 국내정치 불안 증대

- 압둘아지즈 국왕은 취임 후 아들 무하마드 빈 살만을 부왕세자 및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측근들을 요직에 배치
- 또한 석유부 장관의 교체를 통해 확실한 국가 수입원(석유)을 장악
- 빈 살만은 자신의 최측근 알 팔리 아람코 회장을 석유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석유자원 왕실통제 강화 → 과거에는 기술관료들이 석유장관을 맡아 왕실의 권한 견제

○ 세계 19위 경제국인 사우디는 2014년 하반기 이후 低유가로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음

- 2014.7월까지 배럴당 U\$100대였던 유가는 이후 큰 하락세를 보여, 2016.2월 U\$20대까지 하락 후 2016.10월 U\$50대에서 움직이고 있음

〈세계 유가변동 추이〉

	Dubai	Brent	WTI
'14년 연고점	111.23	115.17	107.38
최저점(16.2.)	26.2	27.6	26.5
고점 대비 저점	△76.4%	△76%	△75.3%

자료: 국제금융센터

○ 저유가 지속은 경제성장 하락과 재정적자 악화로 이어지면서 사우디 경제를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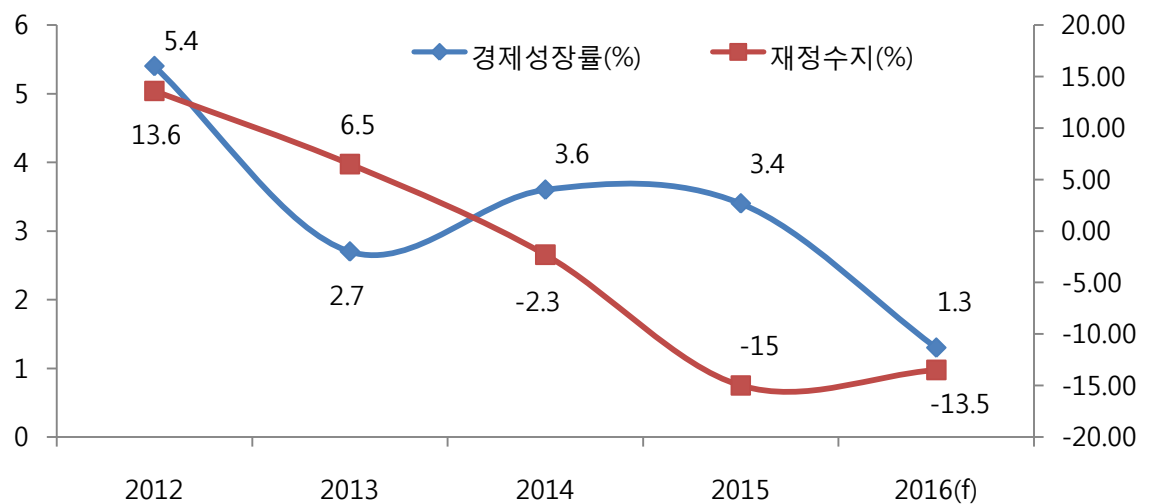
- '16년 사우디 경제성장률은 전년 3.4% 대비 크게 하락한 1.3% 전망
- 유가가 U\$60 이상 회복되지 않을 경우 '17년 경제성장률은 보다 낮은

0.8%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IMF)

- 석유부문은 GDP의 41.8%, 재정수입의 87.5%로 높은 비중을 차지, 유가하락은 재정적자 확대, 외환보유고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석유 수입 감소로 사우디 정부의 재정수지는 2014년 GDP대비 $\Delta 2.3\%$ 로 전환되었으며, 2015년에는 $\Delta 15.0\%$ 로 악화되었음

○ 저유가 기조가 지속된다면, 사우디는 향후 성장기반을 상실하면서 장기침체에 직면할 가능성도 상존

<사우디 경제성장률 및 재정수지(GDP대비)>



자료: World Bank, 2016. 10.

○ 또한 국내정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이란과의 단교, 예멘 내전 개입은 중동 정세불안의 한 요인으로 작용

- 사우디의 시아파 종교지도자 처형과 '16.1월 이란 시위대의 사우디 대사관 공격으로 이란과 단교
 - 이란과는 산유량 감산과 하지 순례 참여 여부 등을 놓고 지속적 갈등 상태
- 사우디는 '15년 3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아파의 '후티' 예멘 반군의 세력확대를 막기 위해 전투기 100대 투입 등 예멘 내전에 개입
- 사우디가 예멘에 무력 개입함으로써 사실상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 국가 대 시아파 맹주인 이란간에 종파 대리전 양상 전개

2. 新경제활성화를 위한 'Vision 2030'

1) '비전(vision) 2030' 발표 배경

□ 대내적으로 국내 정치변화 모색

- 압둘아지즈 국왕 및 무하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부왕세자의 권력강화를 위해 사우디의 기존 정치, 경제 시스템 변화 필요
 - 빈 살만 부왕세자는 국방장관 및 석유와 경제개발, 교육 등을 관리·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책임자까지 겸직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과 재정적자 심화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
 - 재정적자 심화는 각종 정부 발주 물량을 축소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최근 사우디 경제개발위원회는 저유가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계획된 프로젝트 중 1조 사우디 리얄(약 U\$2,600억) 사업을 취소
- 또한 28.7%에 달하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 및 고학력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사회불만 무마 필요
 -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해 반정부시위가 증가하고 사회불안 요소로 부상
 - 정부는 자국민 우선고용제도 등을 도입하였지만, 산업다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효과가 없었음

□ 대외적으로는 저유가 지속에 따른 경제성장 저하와 이란의 역내 정치·경제 패권국가로의 부상 대응

-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란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위기감과 이에 대한 견제 필요
 - 이란은 상대적으로 발전한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을 앞세워 EU, 중국 등과 경제협력 확대
- 미국 셰일가스 영향력 증대 및 OPEC 영향력 감소로 사우디의 국제사회에서의 원유 영향력 축소
 - 최근 사우디와 러시아가 원유 감산에 합의하였으나 원유 주도권 유지 위해

미국 셰일오일 업체 및 이란과의 치킨게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 어려운 국내외 정치, 경제환경의 대변혁을 목표로 무하마드 빈 살만 부왕세자 주도로 '16년 4월 25일 '비전 2030' 발표

2) '비전 2030'의 주요 내용 및 목표

□ '활기찬 사회', '번영하는 경제', '야심찬 국가'라는 3개 부문의 비전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구상을 제시

- 개혁의 핵심은 석유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사우디 경제에서 비석유 부문, 특히 민간부문의 기여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데 방점

□ 활기찬 사회는 '확고한 이슬람적 기초', '성취감 있는 삶', '견고한 사회적 기반' 등 3개 영역으로 구성

- **확고한 이슬람적 기초**: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등 이슬람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중점

- 이를 위해 성지 순례객 관련 각종 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 e-서비스 통합,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및 자동화를 통해 순례객 3,000만 명으로 확대

- **성취감 있는 삶**: 여가, 주택,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개선

- 가계의 문화오락 활동비 지출 비율을 현재 2.9%에서 6%로 확대 및 3개 사우디 도시를 세계 100대 도시에 진입

- **견고한 사회적 기반**: 아동 특성 개발에 적합한 교육제도 구축,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집중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에 중점

- 평균 기대수명 74세에서 80세로 연장 등 보건의료 및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

□ 번영하는 경제는 '일자리 기회 확대', '장기 투자', '열린 비즈니스', '지리적 이점 활용' 등으로 구성

- **일자리 기회확대**: 직업교육,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 여성의 사회 참여와 우수한 해외인재 유치 및 지원 중점

- 실업률을 11.6%에서 7%, 중소기업의 GDP 비중은 20%에서 35%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비중은 22%에서 30%로 향상 목표
- **장기투자:** '비전 2030'의 재원 마련을 위한 아람코 등 국영기업의 민영화, 세계 최대 국부펀드 조성, 전략산업 자국화 등에 중점
 - 세계경제 순위를 19위에서 15위로 끌어올리고, 석유·가스 부문 국산화율은 40%에서 75%로, PIF 자산규모는 6,000억 리알에서 7조 리알로 확대
- **열린 비즈니스:** 사업환경 개선, 경제도시 재활성화, 특별구역(special zone) 설립, 에너지 부문 경쟁력 강화 등 지원
 - 국가경쟁력지수 순위를 25위에서 10위로 향상 및 GDP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비율을 3.8%에서 국제수준인 5.7%로 확대
- **지리적 이점 활용:** 역내 물류허브 구축, 지역적·국제적 통합, 자국 기업 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대 등 추진
 - 국가물류성과지수 순위를 49위에서 25위로 향상시키고, GDP 대비 비석유부문 수출 비중을 16%에서 50%로 제고

□ 야심찬 국가는 '효과적인 통치'와 '높은 책임감' 영역으로 구성

- **효과적인 통치:** 공유 서비스(shared services) 확대를 통한 정부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및 선진 정부 시스템 구축
 - 비석유 재정수입을 1,630억 리알에서 1조 리알로 확대 및 UN 전자정부평가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36위에서 5위로 향상
- **높은 책임감:** 개인, 사업, 사회에 대한 책임감 향상을 통한 비영리 기구 활성화 및 봉사활동 참여 증대 등
 - 가계소득 대비 저축 비율을 6%에서 10%로 높이고 비영리부문의 GDP 기여도를 1% 이하에서 5%로 제고

3. '비전 2030'의 실행 유망분야 및 일본 협력사례

□ '비전 203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확대와 생산성 향상이 필요

- 소극적 정책대응 시 실질가계소득은 줄어들고, 실업률은 높아지며 재정수지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

〈'비전 2030' 목표 달성 시 2030년 경제전망〉

	2014년 현재	2030 전망	
		소극적 정책대응 시	적극적 정책대응 시
실질 GDP(U\$억)	8,000	12,000	16,000
실질가계소득(월, U\$)	3,800	3,000	6,000
실업률(%)	12	22	7
재정수지(GDP대비)	△2.3%	△12%	2%

출처: MGI, 2015.12.

* 국제유가 배럴당 U\$60 회복 가정

□ 따라서 향후 15년간 비석유부문에서 성장유망분야를 집중 육성해 탈에너지산업화 및 산업고도화 추구

- 현재 GDP의 약 42%를 차지하는 석유산업 분야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대신 석유화학을 포함한 제조업, 관광, 보건의료, 건설 등을 집중 육성
 - 특히 '비전 20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U\$4조의 투자가 필요하며, 대부분을 민간부문이 주도할 것을 강조

□ '비전 2030' 전략에 일본이 가장 발 빠르게 대응

- 일본정부 및 기업들은 사우디 부왕세자 무하마드 빈 살람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비전 2030' 관련 협력관계 강화
 - 일본정부는 사우디 종합투자청과 신재생에너지 및 제조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맺는 양해각서(MOU) 체결('16.9.2.)
- 일본·사우디 '비전 2030' 첫 각료회의를 수도 리야드에서 개최('16.10.9.)
 - 이 회의에서는 '비전 2030' 중점 사업 분야 중 사물인터넷(IoT)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선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

- 민간기업으로는 소프트뱅크가 PIF와 함께 향후 5년간 U\$250억, U\$450억을 각각 출자하여 세계 최대 IT 투자 펀드 조성
 - 이 펀드는 '비전 2030' 전략 중 IT분야를 지원하는데 이용될 예정이며 향후 U\$1,000억까지 확대 예정
- 이 밖에 스미토모 상사는 아람코와 공동으로 석유와 가스 시추용 파이프 등을 만드는 현지의 금속 제조업 육성
 - 또한 도쿄전력 홀딩스는 사우디 전력회사와 스마트그리드 구축 협력

4. 시사점

□ 사우디는 비전 2030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자국자본의 집중 투입과 함께 외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 강화

- 이를 위해 선진 각국과 협력강화를 도모하면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려 노력
 - 일례로 2016년 10월, 제1차 일본-사우디 '비전 2030' 각료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제2차 각료회의가 2017년 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
 - 또한 '비전 2030' 실행 자금 확보를 위해 사우디 역사상 처음으로 U\$175억 규모 국채발행에 성공('16.10.19.)

□ 국내기업들도 사우디 既진출 사업분야 외에도 '비전 2030'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진출 검토 필요

- 단기적으로는 사우디 정부의 주요 관심분야인 IT분야와 신재생에너지 산업(풍력, 태양광)에 중점
 - 사우디 정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전자정부 구현에 적극적인 참여 가능
- 또한 사우디 정부의 '탈에너지산업' 집중 육성 분야인 제조업 및 관광 분야 등의 진출도 모색
 - 사우디 정부는 높은 실업률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높은 산업분야 유치에 적극적임

- 한편, 사우디의 비전 전략은 과거에도 수 차례 수립된 바가 있으나 정치, 경제적 여건 악화로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사례들이 있어 진출에 앞서 여러 리스크들을 고려해야 함
 - 2005년에 석유/인구 문제 대응책으로 장기전략 '2024 Vision' 수립을 발표한 바 있음
 - 이 전략은 산업다각화를 통해 20년간 GDP 3배 이상 증대 목표를 설정한 바 있지만 달성하지 못했음
 - 또한 2007년에도 2020 국가산업전략(2007~2020)을 수립한 바 있지만, 일자리 창출과 산업고도화 전략은 실현되지 못함
 - 최근 발표한 '비전 2030'은 빈 살만 부왕세자 주도로 강력하게 실행하고 있지만, 유가 등 보조금 축소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과 기득권 세력의 저항 등 여러 리스크도 잠재되어 있음
 - 특히, 빈 살만의 개혁 실행에 대해 사우디 원로 왕족들의 반발 등 정치리스크 상존
 - 이 밖에 고정환율제 유지와 조세제도 이원화에 따른 외국투자자들의 부담 그리고 자국민 우선 고용정책(Saudization) 등의 사업 리스크로 인해 외국인투자 위축 가능성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

[참고자료]

[보고서/논문/언론]

MGI, "Saudi Arabia Beyond Oil: The Investment and Productivity Transformation", 2015.12

SAUDI GAZETTE, "Full Text of Saudi Arabia's Vision 2030", 2015. 4. 26

손성현, "사우디 비전 2030의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동향 세미나. 2016.5

송상현, "저유가 시장상황과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개혁정책 '비전 2030', GCC Report Biweekly, 2016.5.12.

[홈페이지]

국제금융센터 (<http://www.kcif.or.kr>)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